Gabriel Fauré (1845–1924)

- Requiem, Op. 48
  - □□
- Pelléas et Mélisande Suite, Op. 80
  - □□
- Pavane, Op. 50
  - □□
- Élégie for cello and orchestra, Op. 24
  - □□
- Ballade for piano and orchestra, Op. 19
  - □□

Requiem, Op. 48

Requiem, Op. 48

정보

개요

곡명 : *Requiem* in D minor, Op. 48
작곡가 : Gabriel Fauré (1845–1924)
작곡 : 1887년 가을 –1900년 , 판본별 증보와 관현악 확장
초연 : 초기 5악장판 1888년 1월 16일 , Paris Madeleine 성당 ; 대관현악판 1900년 7월 12일 , Paris Trocadéro, Paul Taffanel 지휘
장르 : 라틴어 장례 미사를 위한 레퀴엠
작품 범위 : `Introït et Kyrie`, `Offertoire`, `Sanctus`, `Pie Jesu`, `Agnus Dei`, `Libera me`, `In paradisum` 의 7악장 상태와 그 초기 ·후기 판본
기준판 : 1900년판은 Bärenreiter Urtext BA09461-01, 1889년 소편성 상태는 Carus 재구성판을 기준으로 대조
전곡 소요 시간 : 약 35–40분 ; 출판사 카탈로그에는 45분 표기도 있음

IMSLP: Requiem, Op. 48 (Fauré, Gabriel)

Wikipedia: Requiem (Fauré)

Gabriel Fauré의 *Requiem* Op. 48은 라틴어 장례 미사의 텍스트를 바탕으로 한 7악장 성악 ·관현악 작품이다 . 오늘날 주로 연주되는 7악장 상태는 1887–88년에 형성된 다섯 악장에서 출발해 `Offertoire`와 `Libera me`가 더해지고 , 1900–01년에 공연장용 관현악으로 확장되었다 . 악장 순서는 `Introït et Kyrie`에서 시작해 `Offertoire`, `Sanctus`, `Pie Jesu`, `Agnus Dei`, `Libera me`, `In paradisum`으로 이어진다 . Fauré는 `Dies irae` 전체를 독립 악장으로 펼치지 않고 `Pie Jesu`를 별도의 기도로 두었으며 , 전례문의 마지막에 놓이는 `In paradisum`으로 작품을 닫았다 .

작품의 성립과 판본

초기 핵심 다섯 악장은 1887년 가을부터 1888년 초 사이에 만들어졌다 . 1888년 1월 16일 Paris Madeleine 성당 장례 예식에서 Fauré가 지휘한 첫 공연에는 `Introït et Kyrie`, `Sanctus`, `Pie Jesu`, `Agnus Dei`, `In paradisum`만 포함되었다 . `Offertoire`와 `Libera me`는 이 공연 뒤에 단계적으로 추가되었다 . `Hostias`를 포함한 `Offertoire`의 바리톤 부분은 1889년 봄에 완성된 것으로 설명되며 , `Libera me`는 1877년에 바리톤과 오르간을 위한 독립곡으로 먼저 쓰였다가 1891년 무렵 레퀴엠에 편입되었다 .

1892년 1월 28일 St. Gervais에서 금관을 더한 공연이 있었다는 기록과 , 1893년 1월 21일 Madeleine에서 일곱 악장으로 이루어진 첫 완전 공연이었다는 기록이 함께 남아 있다 . 1893–94년의 교회용 상태는 한 번에 확정된 단일 사건보다 , 추가된 악장과 편성이 여러 공연을 거치며 정리된 판본으로 이해하는 편이 정확하다 . Carus가 제공하는 1889년 소편성판도 1888년의 다섯 악장을 그대로 복사한 것이 아니라 , 후속 재료를

포함한 특정 자료 상태를 통일한 재구성판이다 .

1900년 7월 12일 Paris Trocadéro의 Exposition Universelle에서는 Paul Taffanel 지휘로 공연장용
대관현악판이 연주되었다 . Hamelle은 1900년에 보컬 스코어를, 1901년에 총보와 파트를 출판했다. 이 판본은 큰 공연장과 합창단을 위해 목관과 바이올린군을 확장했지만 , 악기군을 악장 전체에 계속 울리기보다 선택적으로 사용한다. 완전한 최종 자필 총보가 남아 있지 않고 Hamelle 초판에 오류와 누락이 많기 때문에, Bärenreiter BA09461-01은 자필 스케치 ·보존 악보 ·교정쇄 ·초판 총보와 파트를 함께 대조한 Urtext로 1900 년판의 본문을 제시한다.

텍스트 선택과 작품의 방향

Fauré는 장례 미사의 텍스트 가운데 Dies irae 전체 대신 그 일부에 해당하는 Pie Jesu 를 소프라노의
독립된 기도로 선택하고, 마지막에는 천사들이 죽은 이를 낙원으로 이끌기를 비는 In paradisum 을 둔다. Libera me 에는 영원한 죽음에서 벗어나기를 청하는 탄원과 불안이 남아 있지만, 작품 전체의 텍스트 흐름은 안식과 위안, 낙원으로 이동한다.

Harmonia Mundi의 Jean-Michel Nectoux 북클릿은 Fauré가 자신의 레퀴엠을 고통스러운 통과보다 해방과 저편의 행복을 향한 열망으로 설명한 인터뷰 취지를 전한다. 이 발언은 작품의 온화한 방향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작곡가의 증언이다. Libera me 의 긴장과 D단조의 어두운 시작은 그대로 남아 있다. 텍스트의 선택, 악장 배치, 판본별 음향을 함께 볼 때 Fauré가 심판의 극적 공포보다 평온한 기도의 흐름을 중심에 둔 사실이 드러난다.

전례문별 구성

아래의 tempo와 조성은 1900/01년판의 일반적인 표기를 기준으로 하며, 판본과 연주에 따라 세부가 달라질 수 있다. 각 항목의 시간은 7악장 음반에서 확인되는 대략적인 범위다.

I. Introït et Kyrie — Molto largo, D minor, 약 6–8분

Requiem aeternam 으로 영원한 안식을 청하고 Kyrie eleison 으로 자비를 구하는 시작이다. 낮은 합창과 오르간, 낮은 현악이 기도의 바탕을 만들며, 넓은 극적 폭발보다 안쪽으로 가라앉는 호흡을 제시한다. 이후의 악장들이 빛으로 이동할 수 있는 출발점이 이 어두운 D단조에 놓인다.

II. Offertoire — Allegro molto, B minor, 약 7–8분

1888년 초연 뒤 더해진 악장으로, 죽은 이를 어둠과 고통에서 건져 달라는 봉헌의 텍스트를 다룬다. 바리톤 독창 Hostias 가 개인의 목소리로 간청하고 합창이 그 기도를 받는다. 후대에 더해진 악장이라는 작품사와 바리톤 ·합창이 만드는 인간적 탄원의 기능이 7악장 상태의 구조를 이룬다.

III. Sanctus — Andante moderato, E-flat major, 약 3분

하느님의 거룩함을 찬미하는 합창이 높은 음역과 하프의 울림으로 열리는 대목이다. 초기 편성에서는 독주 바이올린이 제한적으로 높은 선율을 맡았고, 1900년판에서는 확장된 바이올린군이 큰 공연장의 합창을

지지한다 . 같은 텍스트가 판본에 따라 다른 음향 밀도로 나타나는 대표적인 악장이다 .

IV. `Pie Jesu` — `Adagio`, B-flat major, 약 4분

`Dies irae`에서 선택한 `Pie Jesu Domine`의 기도를 소프라노 독창이 부른다 . 독창 선율은 합창의 대규모 장면보다 한 사람의 간청에 가까운 호흡으로 진행하고 , 오르간과 현악이 그 주위를 투명하게 받친다 . 작품 전체에서 이 짧은 기도가 독립된 중심을 이루는 것은 Fauré의 텍스트 선택이 만든 구조적 특징이다 .

V. `Agnus Dei` — `Andante`, F major에서 D major로 , 약 5–6분

하느님의 어린양에게 안식과 평화를 청하는 반복이 시작된다 . 선율과 화성은 앞서 제시한 안식의 세계를 다시 불러오면서 점차 밝은 방향으로 이동한다 . `Agnus Dei`는 텍스트의 반복을 통해 `Introït et Kyrie`와 마지막 `In paradisum` 사이에 평화의 통로를 놓는다 .

VI. `Libera me` — `Moderato`, D minor, 약 4–7분

1877년 독립곡에서 출발한 이 악장은 바리톤 독창과 합창이 영원한 죽음에서 구해 달라고 청하는 대목이다 . 팀파니와 금관이 다른 악장보다 선명한 긴장을 만들고 , Fauré가 `Dies irae` 전체를 쓰지 않은 구성에서도 심판의 그림자는 이 악장에서 가장 가까이 나타난다 . 이 악장이 후대에 추가되었기 때문에 1888년 초연의 정서적 경로와 오늘날의 7악장 흐름 사이에는 구조적 차이가 생긴다 .

VII. `In paradisum` — `Andante moderato`, D major, 약 3–4분

장례 예식의 마지막 기도인 `In paradisum`은 천사와 순교자들이 죽은 이를 낙원으로 인도하기를 빈다 . 높은 합창선과 오르간의 안정된 바탕이 앞선 탄원의 긴장을 낮추고 , 작품을 평온한 이동으로 닫는다 . 결말의 밝음은 세속적 승리보다 전례문이 제시하는 낙원으로의 이행에 근거한다 .

편성의 판본 차이

판본 상태	성악 ·관현악 편성의 핵심
1888년 초기 5악장	소프라노 ·바리톤 독창과 합창 , 낮은 `Violas` · `Cellos` · `Double Basses` , `Harp` , `Timpani` , `Organ` ; `Sanctus`에 독주 바이올린 . Madeleine의 예배에서는 소년 ·남성 성부가 상성부를 맡음
1889년 소편성 재구성	2 `Horns` , 2 `Trumpets` , `Timpani` , `Harp` , `Organ` , 분할된 현악과 독주 바이올린을 중심으로 하며 `Flutes` · `Clarinets` · `Bassoons` 를 쓰지 않음
1900/01년 대관현악판	소프라노 ·바리톤 독창 , SATB 혼성합창 , 2 `Flutes` , 2 `Clarinets` , 2 `Bassoons` , 4 `Horns` , 2 `Trumpets` , 3 `Trombones` , `Timpani` , 2 `Harps` , `Organ` , 현악 5부

1888년과 1889년 상태의 정확한 소리 높이와 합창 배치는 Madeleine 성당의 예배 관행과 연결된다 . 낮은 현악 ·하프 ·오르간이 중심인 초기 편성은 예배 공간의 잔향 안에서 내밀한 기도를 만들고 , 1900/01년판의 목관 ·금관과 전면적인 바이올린군은 Trocadéro 같은 큰 공간에서 합창을 지지한다 . 후기 판본에서도 목관과 금관은 악장별로 선택적으로 사용되며 , 이러한 배치가 Fauré 특유의 절제된 음향을 유지한다 .

소요 시간

판본과 연주에 따른 전곡 시간은 대체로 약 35–40분이다. Philippe Herreweghe의 1893년판 녹음은
북클릿에 38분 15초를, 1901년판 녹음은 일곱 트랙 합계 약 37분 51초를 제시한다. John Rutter가 지휘한 초기 ·소편성 계열의 1984년 녹음은 34분 16초로 더 짧다. Wise Music Classical의 카탈로그에는 1900 년판을 45분으로 안내하는 표기도 있으므로, 45분은 음반 실측과 다른 대표 카탈로그 값으로 함께 이해한다.

판본과 공연 조건

1893년 교회용 상태와 1900/01년 대관현악판은 같은 7악장 텍스트를 공유하면서도 연주 조건이 다르다. 1893년판은 오르간, 낮은 현악, 하프, 제한된 금관을 중심으로 Madeleine 같은 예배 공간의 잔향에 맞는다. 1900/01년판은 플루트와 클라리넷, 전면적인 바이올린군 , 세 대의 트롬본을 더해 큰 홀에서 합창과 독창을 지지한다. 이 차이는 Fauré의 음악이 서로 다른 편집 상태와 공간에서 다른 음향 밀도로 실현된다는 사실을
보여 준다.

John Rutter의 1984년 Hyperion 녹음은 초기 ·소편성 계열을 음반으로 복원한 사례로 소개된다. 낮은 현악 · 하프 ·오르간이 만드는 친밀한 소리는 1900년판의 대관현악과 다른 예배 공간의 감각을 들려준다. Harmonia Mundi의 Philippe Herreweghe 녹음은 1893년판과 1901년판을 각각 다루며, 같은 지휘자가 판본의 편성 차이를 어떻게 다른 시간과 음향으로 구현하는지 비교할 수 있게 한다. 이 녹음들은 작품의 여러 역사적 상태와 공연 조건을 드러낸다.

주요 레코딩

John Rutter / Cambridge Singers, 1984, Hyperion CSCD520: Hyperion은 이 녹음을
초기 ·소편성 계열을 담은 대표적인 기록으로 소개한다. 총시간은 34분 16초이며, 초기 자료에
근거한 후대 편집판의 연주로 소개된다.
Philippe Herreweghe / La Chapelle Royale·Ensemble Musique Oblique, 1893년판: Harmonia Mundi HMM931292 북클릿은 38분 15초와 악장별 시간을 제시한다. 1893년 교회용
상태의 합창과 오르간, 제한된 관현악을 들을 수 있는 기록이다.
Philippe Herreweghe / Collegium Vocale Gent·La Chapelle Royale·Orchestre des Champs-Élysées, 1901년판: Harmonia Mundi의 1901년판 음반은 일곱 악장의 합계 약 37분 51초를 제시한다. 확장된 관현악과 큰 공연장용 편성의 차이를 1893년판 녹음과 직접 비교할 수
있다.

주요 자료

Carus: Requiem, version for small orchestra — 1889년 소편성 재구성과 초기 판본의 편성

Carus: Requiem, version for symphony orchestra — 1900년판의 출판과 판본 설명

Bärenreiter BA09461-01 — 1900년판 Urtext의 편집 범위와 원자료 대조

Hyperion: Fauré Requiem, CSCD520 — 1888년 초기 5악장, 후속 증보, 1900년판 초연과 Rutter 녹음 해설
Harmonia Mundi 1893년판 및 북클릿 — 1893년판 텍스트 ·악장별 시간과 Fauré 발언의 전달 Harmonia Mundi 1901년판 — 대관현악판의 연주자 ·악장별 시간
New Jersey Symphony 프로그램 노트 — Dies irae, Pie Jesu, In paradisum 의 텍스트 선택과 판본별 공연 맥락

Pelléas et Mélisande Suite, Op. 80

정보

개요

항목	내용
작곡가	Gabriel Fauré (1845–1924)
작품명	*Pelléas et Mélisande Suite*, Op. 80
장르	극부수음악에서 나온 관현악 모음곡
원작	Maurice Maeterlinck의 희곡 *Pelléas et Mélisande*
작곡·편곡	1898년 극부수음악, 1900년 세 곡 재편곡, 1909년 네 곡 구성으로 확장
초연	1898년 6월 21일 런던 Prince of Wales Theatre에서 극부수음악 초연, Fauré 지휘
모음곡의 초연	1901년 2월 3일 파리 Concerts Lamoureux에서 세 곡 구성으로 초연, Camille Chevillard 지휘
현재 통용되는 범위	`Prélude`, `Fileuse`, `Sicilienne`, `La mort de Mélisande`의 네 악장

IMSLP: Pelléas et Mélisande Suite, Op. 80

Wikipedia: Pelléas et Mélisande (Fauré)

Fauré의 Op. 80은 Maeterlinck 희곡의 금지된 사랑과 질투를 네 개의 관현악 장면으로 압축한 모음곡이다. 1898년 런던 공연을 위해 쓴 극부수음악 전체를 옮긴 것이 아니라, 그 음악에서 선별하고 재편곡한 연주회용 작품이라는 점이 범위를 결정한다. `Prélude`와 `Fileuse`가 희곡의 불안한 분위기와 일상적 움직임을 열고, `Sicilienne`이 독립적인 서정적 장면을 삽입한 뒤, `La mort de Mélisande`가 비극의 여운을 닫는다.

출판 정보와 판본

Fauré는 Mrs Patrick Campbell이 의뢰한 런던 영어 공연을 위해 1898년에 부수음악을 빠르게 완성했다. 공연용 관현악은 Charles Koechlin이 준비했으며, Fauré는 1900년에 `Prélude`, `Fileuse`, `La mort de Mélisande`를 더 큰 편성의 연주회용 악보로 다시 다듬었다. 이 세 곡을 묶은 모음곡은 1901년 파리에서 초연되고 Hamelle에서 처음 출판되었다.

1909년에 Sicilienne 이 추가되면서 오늘날의 네 곡 순서가 형성되었다 . Bru Zane은 이 악장이 당시 Koechlin의 관현악을 사용해 삽입되었다고 설명하며, Bärenreiter는 네 곡으로 정착한 판본의 1912년 12월 초연을 별도로 기록한다. 따라서 1901년의 세 곡 초연과 1909년의 추가, 1912년의 네 곡 공연은 서로 다른 사건으로 구분된다. Bärenreiter의 비평적 원전판 BA 7895(2016)는 Fauré 전집 제 4권 2분책에 근거하여 이 여러 단계의 자료를 대조한다.

원작과 모음곡의 범위

희곡에서 Golaud는 숲에서 만난 Mélisande와 결혼하지만 , 그녀와 이복동생 Pelléas 사이의 친밀함을
의심한다. 이 관계와 질투가 폭력과 죽음으로 이어지는 것이 작품의 큰 배경이다. 1898년 극부수음악에는
노래와 짧은 막간을 포함한 약 18개의 번호가 있었고, 현재의 Op. 80 네 악장은 그 전체를 재현하지 않는다. 특히 원래 공연에 있던 성악 번호를 네 악장 중 하나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

소요 시간

연주회용 네 악장 모음곡은 대체로 17~20분이 걸린다. LA Philharmonic은 약 18분, Philharmonie de Paris 는 17분 52초의 예를 제시한다. 자료에 따라 약 15분으로 제시되는 경우도 있지만, 이는 템포와 발췌 여부가
다른 공연일 수 있다. 원래 극부수음악 전체는 별도 범위이므로 , 그 자료에 기록된 약 30분의 시간과 이
모음곡의 시간을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

편성

연주회용 모음곡은 플루트 2(제 2는 피콜로 겸함), 오보에 2(제 2는 잉글리시 호른 겸함), 클라리넷 2, 바순 2, 호른 4, 트럼펫 2, 팀파니, 하프와 현악기로 편성된다. 이 큰 편성은 Koechlin이 극장 공연을 위해 준비한 상대적으로 작은 관현악과 구별된다. 따라서 극장판의 음향과 Fauré가 다시 쓴 연주회판의 울림을 같은
악보로 설명해서는 안 된다.

네 악장의 장면 기능

Prélude

Quasi adagio 의 느린 흐름은 희곡의 첫 장면에 놓인 정적과 불길한 예감을 만든다. LA Philharmonic은 이 음악을 Golaud가 Mélisande를 발견하는 상황과 연결한다. 낮은 현의 어두운 바탕 위에 관악 선율이
나타나지만 , 특정 인물의 동기를 직접 묘사하기보다 숲과 운명의 모호함을 먼저 제시하는 도입부로 기능한다.

Fileuse

Andantino quasi allegretto 의 반복적인 음형은 물레질의 규칙적인 동작을 연상시킨다 . 짧은 움직임이
이어지는 동안 독주 오보에가 목관의 색채를 선명하게 만들며, 앞뒤 악장 사이에 인간적인 일상을 놓는다. 이 악장은 극적 사건을 전진시키기보다 , 평온해 보이는 표면 아래에 남아 있는 불안을 가볍게 흔든다.

Sicilienne

Allegretto molto moderato 는 플루트와 하프, 피치카토 현악기의 조합으로 투명한 음향을 만든다. LA Philharmonic은 이를 샘의 장면과 연결하지만 , 1909년에 추가된 이 악장은 독립적인 서정 장면으로도 연주된다. 규칙적인 시칠리아 춤 리듬과 부드러운 선율이 비극의 중심에서 잠시 다른 시간감을 열어 준다.

La mort de Mélisande

Molto adagio 는 Mélisande의 죽음을 애도하는 종결 악장이다. 선율은 크게 폭발하기보다 긴 호흡으로 가라앉고, 관현악의 층이 서서히 겹치면서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상실을 남긴다. 앞의 세 장면에서 축적된 어둠과 서정성이 여기에서 하나의 느린 종지로 수렴한다.

극장판에서 연주회판으로

1898년의 음악은 희곡의 대사, 장면 전환, 노래와 함께 울리도록 설계되었다 . Fauré가 1900년에 세 곡을 재편곡한 작업은 그 기능을 독립된 관현악 감상으로 바꾸었고, 1909년의 Sicilienne 추가는 모음곡의 대비를 넓혔다. 현재의 네 악장은 원작 희곡의 줄거리를 순서대로 들려주는 서곡이 아니라, 연극에서 추출한 분위기와 장면을 새 순서로 묶은 작품이다.

주요 자료

Bärenreiter, Pelléas et Mélisande, Op. 80 전곡판
Bibliothèque nationale de France, Op. 80 서지 기록
Bru Zane Mediabase, Gabriel Fauré의 Pelléas et Mélisande
LA Philharmonic, Suite from Pelléas and Mélisande Philharmonie de Paris, Pelléas et Mélisande, Op. 80

Pavane, Op. 50

정보

개요
곡명: Pavane, Op. 50
작곡가: Gabriel Fauré (1845–1924)
장르: 단악장 관현악곡, 선택 혼성 합창판
작곡 시기: 1887년, 순수 관현악 구상에서 출발
헌정: Élisabeth Greffulhe 백작부인
조성: F-sharp minor
소요 시간: 약 6–7분

Fauré의 Pavane 은 16세기 궁정 춤의 이름을 빌리지만 르네상스 춤을 그대로 복원하지 않는다. 플루트가 길게 노래하는 선율과 피치카토 현악의 일정한 걸음이 F-sharp minor의 서늘한 색채를 만들고, 목관과 호른이 같은 소재를 조금씩 바꾼다. 작품은 관현악만으로 완결되면서도 Robert de Montesquiou의 가사를 얹은 선택 합창판과 무대판으로 계속 다른 표정을 얻었다.

작곡 구상과 헌정
Fauré는 1887년 여름 Le Vésinet에서 지휘자 Jules Danbé의 가벼운 여름 연주회를 염두에 두고 순수 관현악곡을 구상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Danbé가 실제로 초연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으므로, 연주를 위한 구상과 공개 공연을 같은 사건으로 쓰지 않는다. 곡은 Élisabeth Greffulhe 백작부인에게 헌정되었고, 그녀의 인맥과 요청을 통해 Montesquiou의 프랑스어 가사가 붙은 합창판이 마련되었다 .

버전별 초연과 인쇄
BnF, Bru Zane, Carus는 1888년 4월 28일 파리 Société nationale de musique의 첫 연주를 합창판으로 기록한다. 1888년 11월 25일 Concerts Lamoureux에서는 Charles Lamoureux 지휘로 순수 관현악판이 이어졌다. 일부 기관 페이지가 4월 28일을 관현악 버전의 창작으로 간단히 적지만, 작품 표제와 상세한 공연 기록을 함께 보면 두 버전을 구분하는 편이 정확하다.

1888년 Le Gaulois 의 La Danse 앨범에는 피아노와 합창을 위한 축약판이 실렸고, BnF는 1889년 독주 피아노 판과 1891년 피아노 포함 별도 판본을 기록한다. 1901년 Hamelle 재인쇄와 후대 Urtext는 이 여러 경로를 정리해 관현악 ·피아노 ·합창 전승을 이어 왔다. Morgan Library의 자필 표제에 합창이 적혀 있어도,

순수 관현악 구상이 먼저였다는 자료와 모순되지는 않는다.

파반이라는 형식
파반은 16세기 유럽 궁정에서 행렬과 느린 걸음에 쓰인 춤이었다. Fauré는 그 규칙적인 박과 절제된 위엄을 19세기 말 프랑스의 회고적 감수성으로 바꾼다. 작품은 춤의 기능을 재현하기보다 , 일정한 발걸음 위에 화성과 음색의 작은 변화를 쌓아 오래된 양식을 현대의 관현악 언어로 번역한다.

관현악과 합창 편성
순수 관현악판 : 플루트 2, 오보에 2, 클라리넷 2, 바순 2, 호른 2, 현악 5부. 트럼펫, 트롬본, 팀파니, 하프는 기본 편성에 포함되지 않는다.
합창판: 혼성 SATB 또는 네 독창자와 합창을 ad libitum 으로 추가할 수 있다.

작은 관현악은 플루트 선율과 피치카토 현악의 관계를 가까이 들려준다. 목관은 같은 선율의 윤곽을 다른
색으로 바꾸고, 호른은 F-sharp minor의 어두운 온기를 더한다. 합창이 들어오면 Robert de Montesquiou의 가사가 음악 위에 귀족적 가장놀이의 표면을 얹지만, 관현악판의 구조와 선율은 그대로 유지된다.

단악장 안의 걸음과 재조명

플루트에서 시작하는 선율

첫 플루트 선율은 길게 노래하지만 감정을 과장하지 않는다. 피치카토 현악이 가벼운 걸음을 제공하고, 플루트의 호흡은 행렬의 거리감을 유지한다. 목관과 현악이 선율을 주고받으면서 , 한 번의 주제가 곧바로
절정으로 향하기보다 여러 조명 아래서 천천히 모습을 바꾼다.

중간부의 음색 변화

반복되는 선율은 음역과 화성, 악기 배치가 달라질 때마다 다른 표면을 얻는다. 큰 사건을 도입하는 발전부라기보다 , 같은 춤이 조금 다른 속도와 거리로 되돌아오는 방식에 가깝다. 순수 관현악판에서는 이 미세한 변화가 Fauré의 절제된 색채 감각을 직접 드러낸다.

합창이 더하는 사교적 장면

Montesquiou Lindor, Tircis, Myrtille . .

[illegible]

[illegible] Pavane [illegible] .

[illegible]

Pavane 1919 Monaco Masques et bergamasques divertissement [illegible] .

[illegible] Fauré [illegible] .

[illegible]

Breitkopf Urtext 6 , Philharmonie de Paris 7 . Sir Adrian Boult Fauré [illegible] .

Fauré F-sharp minor [illegible] .

[illegible]

- Bibliothèque nationale de France, Pavane
- Philharmonie de Paris, Pavane
- Bru Zane Mediabase, Pavane
- France Musique, Fauré: Pavane

- Faber Music·Edition Peters, Pavane Op. 50
- Carus, Fauré □□□ □□□□
- Morgan Library & Museum, Pavane □□ □□
- IMSLP, Pavane, Op. 50

Élégie for cello and orchestra, Op. 24

정보

개요
곡명: Élégie for cello and orchestra, Op. 24
작곡가: Gabriel Fauré (1845–1924)
장르: 독주 첼로와 관현악을 위한 단악장 애가
기원: 1880년 미완성 첼로 소나타의 느린 악장으로 시작한 첼로 ·피아노 작품
관현악판 : 1895년 (일부 자료는 1897년) Édouard Colonne의 요청으로 편곡, 1901년 4월 26일 공개 초연: 첼로 ·피아노판은 1883년 12월 15일 파리 Société Nationale de Musique에서 Jules Loëb(첼로)와 Fauré(피아노)가 초연. 관현악판은 1901년 4월 26일 Pablo Casals(첼로)와 Fauré(지휘)가 연주
기준 범위: Op. 24의 원곡과 Fauré가 만든 관현악판을 서로 다른 편성 ·연주 단계로 구분해 다룬다.

IMSLP: Élégie, Op. 24

Wikipedia: Élégie (Fauré)

Gabriel Fauré(1845–1924)의 Élégie for cello and orchestra, Op. 24는 첼로가 긴 선율을 이끌고 관현악이 그 주위를 받치는 단악장 작품이다. 곡의 출발점은 첼로와 피아노를 위한 미완성 소나타의 느린 악장이었고 , 1883년에 독립곡으로 공개된 뒤 19세기 말에 관현악판이 마련되었다 . 따라서 오늘날의 제목은 하나의 고정된 편성만 가리키지 않으며, 원곡과 관현악판의 작곡 ·출판 ·초연 단계를 함께 살펴야 한다.

소요 시간

IMSLP는 평균 연주 시간을 약 7분으로 제시하고, Paris Philharmonie의 작품 자료는 피아노판을 약 8분, 관현악판의 영상 공연을 9분 안팎으로 소개한다. 연주 템포와 반복에 따라 대체로 7–9분의 범위에 놓인다.

두 편성과 출판 단계

Fauré는 1880년 첼로와 피아노를 위한 느린 악장을 먼저 썼다. 계획한 소나타의 나머지 악장은 완성되지 않았고, 이 악장은 Élégie 라는 제목의 독립곡으로 정리되어 1883년에 출판되었다 . 원곡의 피아노는 반복 화음과 화성 진행을 직접 제시하며 첼로의 선율을 가까이에서 받친다.

Édouard Colonne가 관현악화를 요청한 뒤 Fauré는 같은 음악을 독주 첼로와 관현악의 음향으로 옮겼다. Philharmonie de Paris, Orchestre national de Bretagne, Faber Music 자료는 이 작업을 1895년으로 기록하지만 , Maison de la Radio 프로그램은 1897년으로 표기한다. 관현악판 자체의 공개 연주는 1901년 4 월 26일로 자료가 일치한다. 편곡 시점의 차이는 두 자료가 관현악화가 진행된 시기를 다르게 기록한 결과이며

, 두 편성은 하나의 작품이 서로 다른 공연 단계로 전승된 형태다.

편성

원곡은 첼로와 피아노를 위한 실내악 편성이다. Fauré의 관현악판은 독주 첼로, 플루트 2, 오보에 2, 클라리넷 2, 바순 2, 호른 4, 현악기로 이루어진다 . 관현악은 소규모 음향을 유지하면서 피아노의 화음과 지속을 목관 · 호른 ·현악의 색채로 분담한다. 독주 첼로가 두 편성에서 계속 선율의 중심을 맡는다는 점이 판본을 잇는다.

형식과 선율 진행

Élégie 는 C단조의 바깥 부분과 A♭장조의 중앙부가 대비되는 3부 형식에 가깝다. Bru Zane Mediabase는 이 구조가 소나타의 느린 악장으로 구상된 기원과 연결되며, 작품의 강한 표현성을 설명한다고 정리한다.

처음에는 피아노의 반복 화음 위로 첼로가 넓은 선율을 펼친다. 하행하는 동기가 여러 선율 진행으로
이어지면서 C단조의 애도 정서를 만든다. 중앙부에서는 A♭장조와 3박 계열의 주제가 등장하고, 피아노가 먼저 제시한 선율을 첼로가 이어받는다 . 첼로의 음역과 움직임이 넓어지면서 절정이 형성된 뒤, 처음의 C단조
구간이 돌아온다. 마지막 귀환은 중앙부의 고조를 거친 뒤 선율을 축약하며 마무리된다 .

이 진행은 ‘슬픔 –격정 –귀환 ’이라는 세 단계를 하나의 호흡으로 이어지게 한다. 공연 자료가 설명하는 바깥
부분의 장중한 고요와 중앙부의 극적 절정은 원곡에서 분명하며, 관현악판은 같은 선율 구조에 더 넓은 음색의 호흡을 부여한다.

작곡가 ·초연자와 작품의 정착

Jules Loëb는 Fauré가 처음 소나타를 구상할 때 염두에 둔 첼리스트였고 , 1883년 공개 초연의 독주자이자
작품의 헌정자였다 . 1880년 6월 21일 Saint-Saëns의 살롱에서 작품이 연주되었다는 전승은 Fauré가 Julien Hamelle에게 보낸 편지와 함께 전해지지만 , 공개 초연은 1883년 12월 15일 Société Nationale de Musique 에서 이루어졌다 . 이때 Fauré가 피아노를 맡아 원곡의 편성을 직접 이끌었다.

관현악판의 첫 연주는 1901년 4월 26일 같은 협회에서 Pablo Casals가 첼로를 연주하고 Fauré가 지휘한
공연으로 기록된다. 이 공연은 1883년 실내악 초연 이후 작품이 독주 첼로와 관현악 레퍼토리로 옮겨 간
시점을 명확히 한다. 오늘날에는 두 편성이 병행되며, 각 편성의 반주 방식과 연주 시간이 서로 다르게
전승된다.

연주 ·녹음 자료

Paris Philharmonie는 Eric Picard, Orchestre de Paris, Paavo Järvi의 관현악판 영상을 약 9분 3초로 올려 두었다. 이 자료는 관현악판의 실제 소요 시간과 소규모 관현악 편성을 함께 확인할 수 있는 공연 기록이다. IMSLP에는 Narek Hakhnazaryan·Noreen Polera의 피아노판 공개 녹음과 다른 피아노판 파일이 수록되어 있으며, 해당 페이지의 평균 7분 표기는 원곡 중심의 시간으로 읽는다.

Bru Zane와 공연기관의 해설은 작품을 Fauré 초기의 강한 표현성과 연결하면서도 , C단조의 바깥 부분 ·A♭ 장조 중앙부 ·독주 첼로의 긴 선율이라는 구체적인 형식으로 설명한다. 이 관점은 C단조와 A♭장조의 대비를 통해 짧은 형식 안에서 선율과 음색이 확장되는 과정을 보여 준다.

주요 자료

IMSLP, Élégie, Op. 24: 원곡 ·관현악판의 서지, 평균 시간, 초연 ·연주자, 악보와 녹음 목록
Bru Zane Mediabase, Élégie op. 24: 1880년 기원, 1883년 Loëb 초연, ABA 구조와 C단조 ·A♭
장조 중앙부
Philharmonie de Paris, Élégie pour violoncelle et piano, op. 24: Colonne 요청에 따른
관현악화, 1901년 Casals·Fauré 공연, 관현악판 영상
Orchestre national de Bretagne, Dossier pédagogique – Élégie: 관현악판 편성, 초연과 작품 형식 해설

Faber Music·Edition Peters, Élégie op. 24: 1880 작곡 ·1883 초연 ·1895 관현악화 ·1901 초연의 판본 서문
Maison de la Radio et de la Musique, 2024 프로그램: 1897 표기와 1901년 Fauré 지휘 기록 Wikipedia, “Élégie (Fauré)”: 기본 서지와 관현악판 정보

Ballade for piano and orchestra, Op. 19

정보

개요
곡명: Ballade for piano and orchestra, Op. 19
작곡가: Gabriel Fauré (1845–1924)
조성: F-sharp major
장르: 피아노와 관현악을 위한 단악장 발라드
작곡 시기: 피아노 독주판 1877–1879년, 관현악판 1881년
초연: 1881년 4월 23일, Paris Société nationale de musique, Fauré 피아노, Édouard Colonne 지휘 헌정: Camille Saint-Saëns
IMSLP: Ballade

Wikipedia: Ballade (Fauré)

Gabriel Fauré의 Ballade for piano and orchestra, Op. 19는 먼저 피아노 독주곡으로 쓰인 뒤
관현악판으로 확장된 단악장 작품이다. 이 글은 1877–1879년에 완성된 독주판과 1881년의 피아노 ·
관현악판을 구분하고, 관현악판의 초연과 세 템포 구획을 중심으로 전곡을 설명한다. 자료가 제시하는 구조는 Andante cantabile, Allegretto moderato, Allegro molto moderato가 한 악장 안에서 이어지는 형태이며, 독주 피아노가 관현악과 협연한다.

출판 정보와 자료

IMSLP와 BIS booklet은 피아노 독주판의 작업을 1877–1879년으로 정리하고, BIS는 1879년 9월 완성을 구체적으로 전한다. 독주판의 최초 출판은 1880년으로 목록화되어 있다. 관현악판은 1881년에 완성되었으며
, BnF의 자필 레코드는 Avril 1881. Ballade pour piano et Orchestre라는 표제와 MS-15136 식별자를 제공한다.

Christophe Grabowski가 편집한 Bärenreiter 판은 피아노 독주판의 Urtext·Critical Edition으로, 관현악판 총보를 대신하는 자료가 아니다. 관현악판의 목록과 악보 제목면에는 Op. 19, Op. 19a, N56, N56b가 함께 나타나며, 이는 출판사와 목록 체계가 독주판 ·관현악판을 서로 다르게 분류한 결과다. Hamelle의 후대 판각 표기는 1901년으로 기록되므로 1880년 독주판 초판과 같은 출판 사건으로 합치지 않는다.

관현악판의 초연은 1881년 4월 23일 Paris의 Société nationale de musique에서 열렸다고 BnF, IMSLP, Bru Zane 등의 기록이 일치해 전한다. Maison de la Radio et de la Musique의 2024년 프로그램은 같은 공연을 4월 2일로 표기하므로 , 자료에는 4월 23일과 4월 2일이라는 두 날짜가 병존한다. 초연에서는 Fauré가 피아노를 연주하고 Édouard Colonne이 지휘했으며, 악보는 Camille Saint-Saëns에게 헌정되었다.

소요 시간

관현악판은 한 악장으로 약 15분이다. AllMusic의 2024년 Romain Descharmes·Michael Halász·Malmö Opera Orchestra 녹음은 15분 06초로 기록되며, IMSLP와 BnF도 평균 시간을 약 15분으로 제시한다. Lucas Debargue의 피아노 독주판 영상은 13분 02초로, 관현악판과 별도의 시간으로 기록된다. 자료는 세 구획별 시간을 제시하지 않는다.

편성

독주: 피아노
목관: 플루트 2, 오보에 2, 클라리넷 2, 바순 2
금관: 호른 2
현악: 현악 5부

확인된 관현악판 목록에는 트럼펫, 트롬본, 팀파니, 별도 타악기, 하프가 기재되지 않는다. 피아노와 2관
편성의 목관, 두 호른, 현악이 관현악판의 편성을 이룬다. 초연 당시 오케스트라의 실제 인원과 좌석 배치는 자료에서 특정되지 않는다.

단악장 안의 세 구획

Philharmonie de Paris의 카탈로그 내용은 작품을 Andante cantabile, Allegretto moderato, Allegro molto moderato로 나눈다. Flaminio Online과 Bru Zane Mediabase는 이를 하나의 연속 악장 안에서 세 구획이 이어지는 tripartite 형식으로 설명하며, 중앙의 빠른 구획을 양쪽의 온건한 구획이 감싼다고 정리한다. Hungarian National Philharmonic은 Fauré가 한 악장 안에서 세 악장이 들린다고 말했다고 전하지만, 이 문장은 기관이 전한 후대의 보고다.

BIS booklet과 Magia dell’opera 프로그램은 이 구획 안에서 넓은 도입, 두 번째 주제, 바르카롤처럼 흔들리는 리듬의 주제, 변형된 회귀, 피아노 카덴차, 아라베스크와 트릴의 종결을 식별한다. 이 설명은 2차 형식
분석으로서 작품의 진행을 안내하며, 판본마다 달라질 수 있는 세부 마디 분석을 대신하지 않는다.

피아노와 관현악의 관계

독주판에서 출발한 작품이므로 관현악판은 피아노의 선율과 화성적 진행을 중심에 둔다. BIS booklet과 형식 해설은 플루트 ·오보에 ·클라리넷 ·바순, 현악이 피아노 주위의 음향을 넓히는 방식으로 관현악판을 설명한다. 편성표에는 큰 금관과 타악기가 따로 기재되지 않으며, 피아노와 2관 편성의 결합이 작품의 협주적 장면을 이룬다.

BIS booklet과 Flaminio의 형식 해설은 도입부에서 주제가 제시되고 중앙 Allegro가 새로운 움직임을 만든 뒤 , 마지막 구획에서 앞선 생각이 변형되어 돌아온다고 설명한다. 따라서 피아노의 카덴차와 끝부분의
아라베스크 ·트릴은 별도의 악장이 아니라 단일 악장 안에서 종결을 준비하는 구간으로 배치된다.

초연과 작품의 맥락

Fauré는 1881년 관현악판을 Camille Saint-Saëns에게 헌정했다. Saint-Saëns가 Fauré의 초기 경력을
도왔고 Liszt와의 만남을 주선했다는 이야기는 Hungarian National Philharmonic, BIS, Bru Zane의 후대 해설에 반복되지만 , Liszt를 만난 장소가 Zürich인지 Weimar인지 자료가 갈린다. 이 일화는 헌정과 인맥의 맥락을 보태지만, 작품의 구조나 Fauré의 작곡 의도를 직접 확정하는 기록은 아니다.

1881년 초연에 관한 다수 기관 기록은 Société nationale de musique, Fauré의 피아노, Colonne의 지휘를 함께 제시한다. 초연 당시 오케스트라의 인원은 특정되지 않는다. Hungarian National Philharmonic의 기관 해설은 당시 비평이 작품을 혼란스럽고 모호하다고 보았다고 전하며, 이 평가는 기관이 후대에 요약한 수용 기록으로 읽어야 한다.

레코딩과 연주 자료

BnF의 음반 카탈로그는 Marguerite Long의 피아노, Philippe Gaubert 지휘, Société des concerts du Conservatoire 오케스트라가 연주한 78회전 음반 두 장을 Columbia LFX54/LFX55로 식별한다.
카탈로그에는 녹음일과 발매 연도가 함께 제시되지 않아, 이 음반의 녹음일과 발매 연도는 확인되지 않는다.

AllMusic의 2024년 음반은 Romain Descharmes, Michael Halász, Malmö Opera Orchestra의 관현악판 연주를 15분 06초로 기록한다. 비평가 Dominic Wells는 이 연주가 약 15분 동안 성긴 질감에서 큰 종결부로 확장된다고 평한다. 이 평가는 해당 녹음의 청취 인상이며, 세 구획이나 조성에 관한 악보 사실과 구분된다.

주요 자료

BnF 작품 권위 레코드, Ballade pour piano et orchestre, Op. 19: 1881년 관현악판, 4월
오케스트레이션 종료, 초연일 ·헌정 ·편성.
BnF 자필 원고 레코드, MS-15136: Avril 1881 자필 악보의 서지와 소장 정보.

Bärenreiter, Fauré Ballade Op. 19: Christophe Grabowski 편집 독주판 Urtext·Critical Edition.

BIS-2389 booklet: 독주판 ·관현악판 연대, 형식 해설, Saint-Saëns와 Liszt 관련 후대 전승.

Bru Zane Mediabase, Ballade pour piano Op. 19: 1877–79 독주판, 1881 관현악판, 단악장 세 구획과 초연 기록.
Flaminio Online, Fauré-Ballade19a: Op. 19a 표기, 세 구획, 관현악 편성.

Maison de la Radio et de la Musique, 2024년 6월 13일 프로그램: 초연일 ·편성 ·Liszt 일화의
변형 표기.
Hungarian National Philharmonic, Ballada Op. 19: 초연 수용, 세 구획, Saint-Saëns 관계에
관한 기관 해설.
BnF 음반 카탈로그, Ballade op. XIX: Long–Gaubert–Société des concerts du Conservatoire 78회전 음반.
AllMusic, Fauré·Poulenc 음반: 2024년 Descharmes–Halász–Malmö Opera Orchestra 녹음과 Dominic Wells의 비평.